政治家 환경인

김상현(金相賢)선생(끝)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4.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한 '김상현' 선생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逝去)로 소위 '80년의 봄'이라고 불리는 정치 격변기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의원의 '3김 시대'가 온 것이다.

그 해, 봄 '김상현' 의원의 창천동 자택에서 '김대중' 선생과 '김상현' 의원 그리고 '권숙표' 박사와 필자가 마주 앉아 이 나라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문제에 따른 국제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하여, 두 시간 넘도록 논의 했다.

즉, 앞으로 환경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해 환경보호가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조건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가 환경보호 우선 정책을 펴야 할 것 등을 '김대중' 씨에게 건의했다. (이때, '김대중' 씨가 권박사님과 필자의 제안을 수첩에 memo하는 바람에 나중에 '김대중' 씨가 다시 구속되었을 때, 이 memo가 노출되어 권박사님과 필자가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그러나 '80년의 봄'은 길지 않았다. 곧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고, 정치와 사회는 다시 긴 겨울로 접어들었다.

필자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조건으로는 '이 나라에서는 환경보호 안 된다'는 신랄한 폭탄선언을 하고(모 잡지에 칼럼으로 발표), 1986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한국계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도시 환경' 문제와 '환경오염과 암(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생활이 마음 편하고 좋았다. 임시 영주권도 나와 아주 미국에서 살면서 세계의 환경보호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 서울 집을 정리하기 위해 1989년에 귀국했다.

잠시 볼일을 보고 갈 생각으로 세면도구 하나만 달랑 들고 김포공항에 내렸다.

서울에 와서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전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 씨와 대결했을 때(당시 필자는 '김대중' 씨의 비선 조직 홍보책임자로 선거 연설문, 포스터, 책자 등을 책

임지고 있었다.), 알던 사람들이 '김상현' 씨와 '권노갑' 씨가 필자를 무척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머물고 있던 마포 '가든 호텔' coffee shop에서 '권노갑' 씨를 만났다.(이 때의 이야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상현' 씨에게 전화하니, 첫마디가, "앗따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나?" 였다.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기에, 마포에 있다고 하니, 당장 공덕동 로터리에 있는 '통일민주당' 당사로 오라는 것이었다.(당시, '김상현' 의원은 '88선거' 에서 낙마하고 '통일 민주당' 부총재로 있었다.)

만나자 마자, '김상현' 씨는 필자가 소식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것을 서운해 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미국에 갔고, 이제는 미국에 아주 정착하려고, 이곳을 정리하려고 잠시 왔다고 하니까, "박동지는 한국의 환경을 보호해야지 미국에서 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무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인 경제적인 조건(그동안 필자의 환경보호 작업은 강의와 원고 집필로 꾸려온 어려운 작업이었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김상현' 씨는 화를 내면서, "내가 비록 금배지는 못 달았지만, 박동지 한사람 못 봐줄 것 같으냐"며 내일 아침에 당장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Coffee shop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만원 짜리 수표 두 장을 커내, 내 손에 쥐어 주며, "이제부터 나랑, 함께 환경보호 하세, 이번에는 내가 금배지를 못 달았지만, 앞으로 다시 국회에 들어가면, 환경보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하겠어… 그러니 '박 동지' 가 도와줘야 하겠소. 나랑 한국에서 환경보호하자구…"

그렇게 해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영진빌딩 6층에 한국환경보호협의회 사무실이 마련되고, 3층의 김의원 사무실로 인해, 김상현 의원과의 광화문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김상현 의원과의 최초의 광화문 시대는 60년대의 '단곡학술연구원' 과 70년대의 '다리' 지 시대 그리고 80년대에서 93년까지의 광화문 시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그 후, '김상현' 씨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정말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 필자가 운영하던 '한국환경보호협의회' 의 회장직을 넘겨드리고 이어서 '국회환경포럼', '한국그린크로스', '환경과 생명' 등 '김상현'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데 도왔다.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 '김상현' 의원의 환경보호 작업을 도움으로서 필자의 새로운 환경보호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후, '김상현' 이 UNEP 'Global 500' 상을 수상함으로서, 필자의 역할도 끝나, 서로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김상현' 씨와는 숙명적(宿命的)이라고 밖에 표현 할 수 없는 인연으로 40여 년을 지내왔다. 이제는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항상 가까이에 느끼고, 서로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 40여 년 동안, 필자는 단 한 번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김상현' 씨에게 어떤 일도 '청탁' 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필자가 떳떳하게 '김상현' 씨를 대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고, '김상현' 씨가 필자를 우습게 알지 않는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끝〉